

함평 5일 시장, 오늘 하루 임시 휴장

코로나 확산 차단위해 우(牛)시장은 21일까지

“불특정 다수 현금거래 특성상 불가피해”

‘함평 5일 시장’이 7일 하루 임시 휴장한다.

함평군은 6일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함평 5일 시장’에 대해 7일 하루 임시 휴장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휴장은 지난 4일 지역 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전남도가 6일부로 도내 방역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군은 함평 우(牛)시장에 대해서도 7일부터 2주간(~7.21) 임시 휴장 조치를 내렸다.

수도권과 광주광역시, 인접한 전남 시·군에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외부 인구 유입에 의한 지역감염 확산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생각이다.

향후 군은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휴장기간 연장 등 이들에 대한 재개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 첫 확진자가 나온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시장을 개장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번 휴장을 결정했다”면서, “내 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인 만큼 시장상인과 축산농가, 지역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광 제2정수장 개량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영광 제2정수장 개량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수장 부지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영광읍 이장단, 주민, 퇴직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영광 제2정수장 개량사업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영광군은 2018년부터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4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4년간에 걸쳐 노후화된 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군은 공사 중에도 수도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무중단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 영광읍 이장단은 기존 위치의 정수장에 전면 개량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으니 정수장 개량사업도 조기에 착수하여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영광 제2정수장의 개량을 통해 수도물의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독천 낙지거리



군서 구림 돌담과 한옥

“영암군에서 동네한바퀴 같이 돌아볼까”

KBS 1TV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영암편 11일 방영

오는 11일 기의 고장 영암군이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전남 영암편’을 통해 배우 김영철과 함께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김영철의 동네한바퀴’는 전국의 동네마다 고여 있는 이야기와 역사, 그 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우 김영철의 여정을 통해 재발견하고 알려주는 도시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방영되는 영암군편은 배우 김영철이 한국트로트가요센터, 덕진 녹차밭, 사자 저수지, 김명성 발효 연구소, 죽죽마을, 구림마을, 독천마을, 삼대포, 영암어란 등 영암군의 주요 명소를 찾아 먹고 즐기며 체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암군의 매력을 생생하게 전해줄 예정이다.

특히 한국트로트가요센터는 영암군 기천랜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트로트가요센터로서 지

상 1층에는 상설전시장과 명예의 전당, 추억의 명소를,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국내 대중음악의 대표적 장르인 트로트 음악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2,200여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구림마을은 450여년 전통의 대동계가 현존하며, 백제 왕인박사, 신라말 도선국사, 고려초 최지몽 선생을 배출한 곳으로 50여개소의 민박촌이 형성되어 있어 다양한 농촌,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국보 제76호 이순신장군 서간첩의 글귀인 ‘약무호남 시무국가’가 새겨져 있는 이순신 장군 어록비가 있어 호남의 정체성과 역사의를 확인할 수 있다.

독천은 낙지거리로 유명하며 독천 시장을 중심으로 수십개의

낙지 음식점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낙이호롱이, 연포탕, 갈낙탕 등의 낙지 관련 명품 토속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며 그 외의 방송 예정인 곳들도 모두 영암군의 자랑할만한 명소들로, 평소 영암에 대해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영암을 공급해하고 찾고자 했던 이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의 고장 영암군의 이야기를 보여줄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전남 영암편’은 이번 주 토요일인 7월 11일 19시 10분 KBS 1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전국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영암군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하며 영암군은 앞으로도 월출산 명사탐방로를 비롯하여 많은 관광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오는 21일까지 종사자수 10인 이상 49개 사업체 대상

목포시가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2019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개월 이상의 작업실적이 있는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목포시는 49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산업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명, 대표자명, 조직형태, 종사자수, 매출액 등 14개 항목을 인터넷과 조시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조사 진행된다. 단, 인터넷 조사는 7월 31일까지 응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표될 예정으로, 목포 지역경제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조사원에 대한 코로나 안전 교육 등 철저한 사전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해당 사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통계법으로 엄격히 보호되며,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응답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음식점에 투명위생마스크 배부

청결한 외식환경 조성 앞장

무안군은 코로나19 감염병 및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투명 위생마스크 지원과 일반음식점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나선다.

군은 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보건소 위생팀 등 직원 4명이 관내 312개 음식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630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위생마스크는 음식 조리과 손님 대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 튀김을 방지하여 비말감염의 우려를 줄여주고 호흡기를 통한 병원균 감염방지도 뛰어나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까지 전염병에 철저히 대처해 왔듯이



지역 내 감염을 예방하고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준수와 손 씻기 생활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영광군, 농수특산물 5톤 미국 수출 선적

굴비·모시송편·찰보리식혜·고춧가루 등 10만 불 상당

영광군은 지난 3일 나주시 노안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골든힐(대표 한문철)에서 ‘영광군 농수산물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이번 농수특산물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 부진은 물론 해외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이뤄낸 성과이다.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인 굴비, 모시송편을 비롯해 찰보리 식혜, 고춧가루, 볶음고추장, 엿기름가루, 새싹보리 분말 등 10만 불 상당의 10개 품목이 수출 길에 오른다.

영광=서희권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